

한국형 오컬트 미스터리 SBS 금토 드라마



6월 23일(금) 밤 10시
첫 방송

올여름을 강타할 드라마 <악귀>가 6월 23일(금) 첫 공개된다.

<악귀>는 악귀에 씌여진 여자와 그 악귀를 볼 수 있는 남자가 의문의 죽음을 파헤치는 한국형 오컬트 미스터리 스릴러다. 이번 작품은 <싸인>, <유령>, <시그널>, <킹덤> 등 작품성과 흥행력을 인정받아 온 장르물의 대가 김은희 작가가 약 9년 만에 SBS와 손을 잡고 선보이는 신작이다. 특히, 한국 민속학에 기반한 오컬트와 연이어 발생하는 의문의 사건들을 추적하는 미스터리 서사가 결합되어, 또 하나의 '김은희 장르' 탄생을 예고하게 한다. 여기에 미스터리 멜로드라마 <VIP>로 스타일리시한 연출을 선보였던 이정림 PD가 의기투합했다. 더불어 김태리, 오정세, 홍경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이 합세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작감배(작가+감독+배우)' 진용을 완성했다.

먼저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에 도전,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이며 '섭외 1순위 배우'로 손꼽히는 김태리는 공시생 '구산영' 역을 맡았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N년째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구산영은 세상을 떠난 아빠의 유품을 받은 뒤부터 주변에서 자꾸만 일어나는 의문의 죽음들에 휘말리게 되고, 점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한다. 제작진은 "구산영은 선과 악이 혼재된 복잡한 인물이다. 누구보다 선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강렬한 카리스마를 내뿜는 김태리 이상의 배우를 생각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김태리의 탄탄하고 대담한 연기력이 작품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스물다섯 스물하나> 등 출연하는 작품마다 뛰어난 연기력으로 흥행을 이끈 그녀의 캐스팅 소식은 드라마 <악귀>의 첫 방송을 벌써부터 기대하게 만든다.

또한 어떤 역할을 맡아도 상상 그 이상의 연기를 펼쳐내,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연 배우로 자리매김한 오정세는 재력가 집안 출신의 민속학과 교수 '염해상' 역을 맡았다. 귀(鬼)와 신(神)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염해상은 예상치 못한 계기로 구산영을 알게 되고, 어릴 적 자신의 눈앞에서 어머니를 죽였던 악귀와 다시 조우하게 된다. "특별한 능력을 지닌 염해상 역의 오정세가 안정된 연기력과 세밀한 감정 연기로 평범하지 않은 인물을 그려갈 예정이다. 발군의 캐릭터 소화력으로 작품의 몰입도를 높이며 무게감을 실어줄 것"이라는 게 제작진의 전언. <사이코지만 괜찮아>, <모범형사>, <스토브리그>, <앵클> 등 매 작품 자신만의 캐릭터를 구축해 온 오정세가 이번에는 어떤 '인생캐'를 탄생시킬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작품에서 차곡차곡 쌓은 연기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요즘 대세' 배우로 주목받고 있는 홍경이 경찰대 수석 출신의 강력범죄수사대 경위 '이홍새'로 출연한다. 나 잘난 맛에 사는 이홍새는 오로지 특진만을 목표로 삼았지만, 위의 두 인물인 구산영, 염해상과 엮이게 되면서 보고도 믿기지 않을 사건들에 휘말리게 된다. 섬세하고 뛰어난 실력을 가진 화공 역을 맡았던 <홍천기>와 후임병을 괴롭히는 악역을 선보인 <D.P.> 등 어떤 작품에서도 존재감을 심었던 홍경이 이번에는 톱툰 뭉치 자기애로 인생이 꼬여버린 엘리트 형사 역을 맡아 연기 변신을 시도한다. 이어 제작진은 "장르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김은희 작가의 탄탄한 대본과 김태리, 오정세, 홍경 등 탁월한 연기력을 지닌 명품 배우들의 열연, 이를 아우르는 이정림 PD의 독보적인 연출력이 완벽한 앙상블을 이룬다. 안방극장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한국형 오컬트 미스터리가 시청자의 관전 욕구와 맞닿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새 금토 드라마 <악귀>는 오는 6월 23일(금) 밤 10시 첫 방송된다.





“AI시대, 다시 쓰는 경제 패러다임”- 11월 2일(목) DDP 개최

이 시대 ‘경제 성장’ 어떻게 이뤄낼까?

재난의 일상화
탄소 중립 달성 좋은 경제학
기후의 역습

복합위기
초거대 AI
AI창작시대
글로벌+로컬=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
일의 미래와 나의 정체성

남북규제
과학기술
11000 파산회
취약성 원천기술

SDF SBS D FORUM 2023

AI시대, 다시 쓰는 경제 패러다임

성장과 과잉 사이
경제성장의 맥락
유대노이드 로켓

초저출생·고령화 위기
프리캐리아트
파이어 웨더

초분절화·탈세계화
글로벌트렌드
엔지니어

애자일 거버넌스
생물 다양성의 경제학

SBS 대표 사회 공헌 지식 나눔 프로젝트인 ‘SBS D 포럼(이하 SDF)’이 오는 11월 2일(목)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정치 개혁을 화두로 내걸었던 ‘SDF’가 올해는 경제로 눈을 돌려 ‘AI시대, 다시 쓰는 경제 패러다임’ 주제로 진행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원자재 등의 유통망이 분절되고, AI, 반도체 등 기술 주권을 놓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기존의 경제 질서는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세계화’로 대표되던 자유무역 체제의 붕괴가 대표적이다. RE100(재생에너지 100%),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탄소국경세 등 기후 위기 대응이란 해일도 턱 밑까지 밀려왔다. 게다가 생성형 AI가 일상으로 성큼 들어오면서 고학력, 고소득, 창의적 직군의 일자리까지 위협받고 있다. 게임의 룰이 바뀌는 것이다. 기존의 경제 위기가 높은 파고라면, 지금의 상황은 해류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그야말로, 경제 패러다임을 새로 써야 할 때다.

이에 SDF2023을 준비하는 미래팀(보도본부 논설위원실)은 기술 패권이 국제정치까지 좌지우지하는 기정학(技政學) 시대를 맞아 반도체 다음의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풀어야 하는 기술적 난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또한 새로 재편되는 경제 질서에 올라타기 위해 바뀌어야 하는 법과 제도는 무엇인지, 먹고사는 규칙이 바뀌는 시대에 개인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대비해야 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1,300명 역대 최다 관객 동원



올스타전

시청자 구단주 뜨거운 열기에 <골때녀> 인기 실감



<골 때리는 그녀들>이 6월 6일(화) 1,300명 역대 최다 관객을 동원한 시청자 초대 올스타전 이벤트를 개최했다.

<골 때리는 그녀들(이하 <골때녀>)>이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시청자 구단주와 함께하는 올스타전 직관 경기를 펼쳐 큰 호응을 끌어냈다. <골때녀> 아레나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당초 1,000명의 관객만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22,000명의 신청자가 몰려 총 1,300명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등 시작 전부터 뜨거운 열기로 <골때녀>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올스타전 경기를 보러 온 팬들은 경기 당일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루며 응원 배너 및 각종 응원 도구를 준비하는 열의를 보였다. 행사장에는 응원 슬로건 제작 부스는 물론이

고, 선수들의 라커룸과 프레스룸을 본뜬 포토존, MD 판매 부스, 올스타전 승부 예측 코너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마련돼 별들의 축제에 재미를 더했다.

또한 본 경기에 앞서 국내 크로스오버의 아이콘인 그룹 ‘포레스텔라’가 등장해 축하 공연을 펼쳤다.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국위선양의 아이콘이 된 박항서는 ‘특별 해설위원’으로 깜짝 등장해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올스타전 사전 경기로,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들이 대거 포진한 국가대표 레전드 감독들의 스페셜 매치도 펼쳐졌다. 감독들은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적인 경기를 펼치며 현역 선수 못지않은 실력을 과시해 팬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어진 올스타전에서는 경서-서기, 이현이-허경희, 박선

영-안혜경, 키썌-김가영, 엘로디-케시 등 각자의 팀에서 명콤비로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이 블랙 팀과 화이트 팀으로 나뉘어 경기를 펼쳐 흥미를 더했다. 팬들은 올스타전에 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팀 구성에 뜨거운 응원을 보냈고, 경기장을 가득 채운 팬들의 성원에 선수들은 별들의 축제다운 수준 높은 경기력으로 보답했다.

관람을 마친 한 시청자는 “기대했던 본 경기보다 훨씬 많은 볼거리가 있어 마음껏 즐겼다. 휴일을 반납하고 참석한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경기력이었다”고 호평했다. 제작진은 “언제나 <골때녀>를 아껴주고 뜨겁게 성원해 주는 팬들을 위해 정성껏 이벤트를 준비했다. 많이 찾아오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부서탐방



“SBS 구성원들의 노력을 ‘성과급’으로 바꾼다”

- 경영본부 기획팀

“기획팀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팀이에요?”라는 질문을 들을 때가 있다.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하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기획팀은 SBS 구성원들의 노력을 성과급으로 바꿔드리는 팀입니다.”

기획팀은 SBS의 8개 본부 66개 팀, 10여 개의 자회사를 대상으로 ‘돈’과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점검한다. 연말마다 각 팀에 경영계획과 사업계획 업무 연락을 발송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어디서 어떻게 수익이 나고, 비용은 얼마나 발생할지를 계획하고 예측해야 한 해 회사가 가용 가능한 자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파악된 자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끊임없이 검토하고, 예측하고, 최적의 시나리오를 고안하는 게 기획팀의 일이다. 시장과 산업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제작진, 사업팀, 경영진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다. 그 결과가 연말의 성과급이고, 주주들에게는 배당금이다. 베테랑 팀장부터 뚝뚝한 신입까지 총 8명의 팀원들이 이런 생각으로 임하면 저절로 부지런히 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한 일이지만, 기획팀의 업무가 다른 팀에게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수시로 ‘줄여달라, 고쳐달라, 다시 생각해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의 한정된 자원은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통해 일궈진 소중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불편할 것을 알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기획팀 입장을 심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회사는 변화에 예민한 조직이다. 한때의 기회가 위기로, 위기가 기회로 바뀌곤 한다. 기획팀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획팀은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 속에서 회사가 보다 탄탄한 길을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김상구 팀장

차상은

길효영

김수지

이진연

유승진

하지민

장용준

<모범택시2>, <꼬꼬무>, <뜨거우면 지상렬> 이달의 PD상 수상



<모범택시2>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뜨거우면 지상렬>

6월 2일(금) 한국PD연합회 주최 ‘제278회 이달의 PD상’ 시상식에서 SBS 프로그램 세 편이 수상했다. TV 드라마 부문으로,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항극 <모범택시2>(연출 : 이단, 장영석, 작가 : 오상호)가 수상했다. 심사위원회는 “현실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이슈를 찾아내 꼬집고 응징했으며, 그동안 굶아있던 우리 사회 문제들을 극에서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잡았다”고 호평했다.

TV 교양정보 부문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 백골 시신과 시멘트, 1948 사라진 사람들>(연출 : 황성준, 백시원, 우용만, 문소은, 작가 : 손하늘)이 수상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주 4.3 사건을 쉽게 전달했고, 정확하지 못한 정보들이 난립하는 시국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정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라디오 정규 부문은 <뜨거우면 지상렬 - ‘파추왕자 와이공주’ 코너>(연출 : 윤의준, 작가 : 흥은혜, 황수빈, 오유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누구나 한 번쯤 있었지만 어디에 말하기 부끄러운 ‘성기’에 관한 고민을 다뤘는데, “단순히 19금 이야기를 하는 오락 코너가 아니라, 병원 문턱을 넘기 힘들어하는 보통 사람들의 성 고민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실종아동의 날 <그것이 알고싶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5월 25일(목)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한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에서 <그것이 알고싶다>(연출 : 위상현, 작가 : 오유경)가 보건복지부 장관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실종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기념식에서 <그것이 알고싶다>는 ‘악몽이 된 소풍 - 모영광 군 실종 미스터리 (2022년 7월 16일 방송)’와 ‘아이의 마지막 외출 - 최준원 양 실종사건(2023년 3월 11일 방송)’을 다뤄 아동의 실종 예방 및 발견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되었다.

PD 제작수첩



< 짹 >에서 < 나는 SOLO >까지,

연애 예능 홍수 속 100회 맞은 원조의 품격

나는 *I am*
SOLO

- SBS플러스 김태형 편성제작국장



작년부터 우후죽순처럼 쏟아졌던 연애 예능 가운데 <나는 SOLO>(SBS Plus, ENA 공동제작)가 유일하게 주간 정규물로 감격의 100회를 맞이했다. 모태인 < 짹 >이 3년간 150회를 방송했으나, 둘을 합하면 5년간 250회 방송으로, 출연자만 1,100명에 이르는 대장정이다. <나는 SOLO> 방송 이후 연애 프로만 약 15개가 생겨났지만 리얼리티와 재미 면에서 그만큼 성공을 거두진 못했다. 100회를 맞아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며 <나는 SOLO>가 대표 연애 예능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어떤 핵심 요소가 있었는지 나름의 복기를 해보았다.

첫 번째, 원조 연애 예능인 < 짹 >에서 출발한 저력

소위 '짹짹기 예능'으로 불리는 데이트 프로그램의 시초가 < 짹 >이라는 것에 의문을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짹 >은 당시 연예인들 중심이던 연애 예능 판도를 '일반인' 주인공으로 바꿨고, 그들의 감정선을 '날 것' 그대로 담아내 데이트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었다. 이런 < 짹 >이라는 경쟁력 있는 유산 덕에 <나는 SOLO>는 시작부터 분명 승산이 있었다. 타 프로그램들이 시즌제로 제작할 때 2년간 씬 없이 기수제를 고집하며 독자 노선을 탔다. 또 출연자들의 외모 등 시각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타사 연애 예능과 달리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보다 폭넓은 연령층의 출연자들을 수용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내면적인 부분에 집중했다.

두 번째, SBS와 연계 편성 전략의 성공

< 짹 >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종영한 이후, SBS 플러스에서 다시 데이트 프로그램을 하는 것조차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란 최종 결론으로, 2021년 7월 <나는 SOLO>는 시작됐다. 하지만 한동안 케이블 채널의 커버리지 한계 등으로

시청률 면에서 고전하고 있을 때 9월 추석을 앞두고 SBS에 편성되는 기회를 갖게 됐다. 기수별로 몰아볼 수 있는 명절 특별 편성을 통해 인지도 확산 및 시청자 유입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SBS와 <나는 SOLO> 사이의 콘텐츠 오리지널리티를 확보하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SBS 편성 후 케이블 방송의 성공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시청률 1%를 넘었고 현재는 타깃 평균 3%대의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이끌고 있다.

세 번째, 실제 결혼 커플로 이어지는 독보적인 진정성

현재 14기까지 약 170여 명의 출연자가 거쳐간 솔로 나라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매력적인 사람들이 등장했고, 총 6쌍의 결혼 커플이 탄생했다(현재 방영 중인 15기에서도 결혼 커플이 등장한다). 이는 단순한 연애가 아닌 결혼을 원하는 출연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 외에도 프로그램을 통해 연인 사이로 발전해 공개 연애 중인 커플도 현재 다수다.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람들이 현실에서 결혼과 연애로 발전하는 그 진정성과 사실성에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것이다.

이제 막 장수 프로그램 반열에 오른 <나는 SOLO>. "좋은 일도 많았지만, 앞으로 우여곡절도 많겠죠"라는 MC 데프콘의 100회 오프닝 멘트처럼 솔로 나라가 헤치고 나가야 할 파고다만 만치 않을 것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요즘 말처럼 <나는 SOLO>에서는 사랑에 배고픈 이 시대 솔로 남녀들의 진짜 이야기와 감정을 꺾지 않고 담아낼 것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심을 다해 만들면 <나는 SOLO>가 200회, 300회, 500회를 넘어가는 장수 효과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의 <나는 SOLO>가 있기까지 응원과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SBS 회식문화 캠페인 “즐겁게, 새롭게, 가볍게” 전개



SBS는 회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발맞추고, 직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회식문화 캠페인 - 즐겁게, 새롭게, 가볍게'를 전개한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15조 원, 그중 생산성 저하에 따른 손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음주운전, 폭행, 성 비위 등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SBS 컬러 코드'의 회식 3대 원칙(참석은 자유 의지로! 다양한 방식으로! 기분 좋을 만큼만)을 바탕으로 "즐겁게, 새롭게, 가볍게"라는 회식문화 캠페인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특히, 행동 준칙으로 첫 번째, 건배 제외, 술 게임, 원샷 등 술을 강권하지 말고, 억지로 마시지 않기, 두 번째,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불쾌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 금지, 세 번째, 저녁 회식, 술자리는 가볍고 깔끔하게 1차에서 마무리, 2차는 금지 조항을 내세웠다.

안식년을 맞이합니다 - 경민석



경영본부 총무팀 경민석 부장이 7월 안식년을 맞이한다. 경민석 부장은 1991년 SBS-TV 개국 전인 6월에 기획팀으로 입사해 예산 담당 업무를 맡았고, 문화사업팀에서 <세계슈퍼모델대회> 프로듀서로, 홍보팀에서는

동영상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드라마 홍보를 진행했다. 드라마운영팀에서는 <뿌리 깊은 나무>, <야왕>, <천일의 약속> 등 다수 드라마 제작에 참여해 제작 계약 등 프로듀서 업무를 담당했고, 이후 총무팀에서 구매 계약 업무를 수행했다.